

## 고구려 지명 ‘혈구군(穴口郡)’의 ‘혈(穴)’에 대하여<sup>1)</sup>\*

임 홍 빈  
(서울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 1. 서론

본고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타난 고구려어 지명 가운데 여러 차례 그 해독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해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혈구군(穴口郡)’의 ‘혈(穴)’에 대하여 필자로서 가능한 해독을 제시하려고 하며, ‘혈(穴)’을 나타내는 고구려 어형이 다른 알타이 어형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그것이 알타이 어족 가설에 대하여 어떠한 함축을 가

\* 본고의 심사본을 읽고 부족한 점을 지적해 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분들의 지적에 의하여 본고의 크고 작은 결함이 개선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본고의 기본 가정 자체에 회의를 표한 심사자도 있어 모든 지적을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나, 기본 가정 자체를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물론 과오는 언제나 필자만의 것이다.

주 제 어: 고구려어, 『삼국사기』 지리지, 알타이 어족, 지명, 혈구군(穴口郡), 갑비고차(甲比古次), 갑비(甲比), 추상 재구형, 강화, 구무, 나루  
**Goguryeic, Sanguksagi, Altaic language family, toponym, Hyeolgugun, kapigocha, kapi, Abstract Reconstructed Form, Ganghwa, kumu, naru**

지는가에 대하여 필자로서 가능한 가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남아 있는 고구려어 지명 가운데 순수 고구려어를 적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라면 고구려어의 계통 연구에 대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마는, 특히 ‘혈구군(穴口郡)’은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혈구군(穴口郡)’의 ‘혈(穴)’과 ‘구(口)’ 특히 ‘혈(穴)’은 고구려어 혹은 한국어의 계통 문제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sup>1)</sup> 원시한어를 둘로 나누어 부여 및 고구려어를 중심으로 하는 북방계와 삼한의 언어 즉 한계를 중심으로 하는 남방계가 어느 정도 차이를 가지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볼 수 있는 핵심 어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혈구군(穴口郡)’의 ‘혈(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혈(穴)’의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되는 ‘갑비(甲比)’는 중세어형과 완전히 동일한 어형을 보이는 것이 아니면서 중세어형의 선대형으로 볼 수 있는 어형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혈구군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3절에서는 ‘혈구군’에 해당하는 고구려어로 생각되는 ‘갑비고차(甲比古次)’에서 ‘갑비’에 대한 이전의 논의를 살피고, 4절에서는 □□삼국사기□□에 기재된 ‘갑비(甲比)’의 어형을 어떻게 재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 의미를 다루고, 5절에서는 고구려어의 ‘갑비(甲比)’와 중세어의 ‘구무’가 비교 가능한 어형임을 밝힌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추상 재구형에 의한 검증을 도입한다. 6절에서는 알타이어의 ‘혈’과 고구려어의 ‘갑비(甲比)’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7절에서는 논의를 마무리한다.

1) 처음 계획은 본고에서 ‘구(口)’ 즉 ‘고차(古次)’의 문제까지 모두 다룰 예정이었으나, 지면이 넘쳐 부득이 ‘구(口)’에 대해서는 다른 원고를 준비하려고 한다.

## 2. ‘혈구군(穴口郡)’ 관련 기록

본고의 해독 대상이 되는 □□삼국사기□□ 지리지의 관련 기록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sup>2)</sup>

- (1) 가. 穴口郡 一云 甲比古次 [‘혈구군’은 ‘갑비고차’라고도 한다](□□삼국사기□□ 37권-지6-지리4-03<sup>3)</sup>)
- 나. 穴城 本 甲忽 [‘혈성’은 이전에 ‘갑홀’이었다](□□삼국사기□□ 37권-지6-지리4-013)
- 다. 海口郡 本 高句麗 穴口郡 在海中 景德王改名 今 江華縣 嶺縣三 [‘해구군’은 이전 고구려의 ‘혈구군’으로, 바다 가운데 있으며, 경덕왕이 이름을 바꾼 것으로, 지금의 ‘강화현’이다. 거느리는 현이 셋이다](□□삼국사기□□ 35권-지4-지리2-23)
- 라. 沘陰縣[沘陰縣/江陰縣<sup>4)</sup>] 本 高句麗 冬音奈縣 景德王改名 在穴口島內 今 河陰縣 [‘자음현(호음현/강음현)’은 이전 고구려의 ‘동음나현’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바꾸었다. ‘혈구도’ 안에 있으며, 지금은 ‘하음현’이다](□□삼국사기□□ 35권-지4-지리2-24)
- 마. 冬十月, 攻陷 百濟 關彌城 其城四面峭絕 海水環繞 王分軍七道 攻擊二十日 乃拔 [겨울 10월 백제의 ‘관미성(關彌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 성은 사면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왕은 군사를 일곱 길로 나누어 20일을 공격하여 마침내 빼앗았다](□□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6, 광개토왕, 원년)

- 
- 2) □□삼국사기□□ 자료 검색에는 주로 한국사자료연구소의 입력본이 사용되었음을 밝혀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 3) □□삼국사기□□ 출전에 적힌 맨 마지막 숫자는 해당 기사의 문단의 차례를 나타내는 숫자이다. 이하 같음.
- 4) ‘호음현(沘陰縣)’은 조병순의 ‘삼국사절요’에 나오는 이름이고, ‘강음현(江陰縣)’은 북한본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름이다. 한국사자료연구소 □□삼국사기□□ 참조 여기서 ‘북한본’이란 1959년에 과학원출판사에서 출간된 □□삼국사기□□ 대역본을 뜻한다. 편찬을 담당할 것은 ‘고전연구실’로 되어 있다.

(1가)는 ‘혈구군(穴口郡)’이 ‘갑비고차(甲比古次)’라고도 불린다는 기록이다. ‘갑비(甲比)’는 ‘혈(穴)’에 대응되고, ‘구(口)’를 ‘고차(古次)’에 대응된다. (1나)는 ‘혈구군(穴口郡)’ 외에도 ‘혈성(穴城)’이 나타남을 보인 것이다. (1가)의 ‘갑비(甲比)’와 달리, (1나)에서는 ‘갑(甲)’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1다)는 고구려 때의 ‘혈구군’이 경덕왕 때에는 ‘해구군(海口郡)’으로 이름이 바뀌고 고려시대에는 ‘강화현(江華縣)’이 되었음을 말해 준다.<sup>5)</sup> (1가)의 ‘갑비고차’가 바로 ‘강화도’를 가리키던 고구려어 단어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6)</sup> (1라)에서는 ‘혈구군(穴口郡)’의 다른 이름 ‘혈구도(穴口島)’와 만날 수 있다. ‘혈구군(穴口郡)’이 행정적 지역 단위 명칭이라면, ‘혈구도(穴口島)’는 지리적 명칭이라 할 수 있다. (1마)는 ‘강화도’의 백제 때의 이름이 ‘관미성’이었음을 알려 준다.<sup>7)</sup>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2) ‘혈구군(穴口郡)’의 유래와 연혁<sup>8)</sup>

- 5) ‘혈구군(穴口郡)’이 ‘해구군(海口郡)’이란 이름으로 바뀐 것은 단순한 지명의 바뀌므로 보인다. ‘혈구군(穴口郡)’의 ‘혈’이나 그 고구려어형 ‘갑비고차(甲比古次)’의 ‘갑비(甲比)’와 바다를 뜻하는 ‘해(海)’ 사이에는 비교 가능한 대응 어형이 찾아지지 않는다. 익명의 심사자 한 분은 ‘혈구군(穴口郡)’과 ‘갑비고차(甲比古次)’도 어휘적 대응형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명 바뀐의 예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을 해주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휘적 대응형을 가정해 볼 수 있다는 점이 ‘해구군’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 6) 이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양주동(1942, 1965), 신태현(1958), 이기문(1968), 김주원(1981), 최남희(2005)이다.
- 7) 이에 주목하게 된 것은 양주동(1942, 1965: 274)에서의 인용이 계기가 되었다.
- 8) □□고려사□□지리지(56卷志10-地理1-008)의 기록은 ‘강화현’이 고구려 때에는 ‘혈구군(穴口郡)’이었다는 것, 경덕왕 때 ‘해구군(海口郡)’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 현종 9년에 현령을 두었다는 것, 고종 19년에 몽고의 난을 피하여 왔을 때 군(郡)으로 승격이 되어 ‘강도(江都)’라 불렸다는 것, 충렬왕 때에는 인주(仁州, 지금의 인천)에 속하였으나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구되어 부(府)로 승격이 되었다는 것 등의 기록이 더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2권 16장)에는 신라 원성왕 때 ‘혈구진(穴口鎭)’을 두

- 가. ‘혈구군(穴口郡)’의 고구려 때의 이름은 ‘갑비고차(甲比古次)’이었다.
- 나. ‘혈구군(穴口郡)’의 백제 때의 이름은 ‘관미성(關彌城)’이었다.
- 다. ‘혈구군(穴口郡)’은 신라 경덕왕 때 ‘해구군(海口郡)’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 라. ‘혈구군(穴口郡)’은 행정 단위에 대한 명칭이고, 그 지리적 명칭은 ‘혈구도(穴口島)’이었다.
- 마. ‘해구군(海口郡)’은 고려 때 ‘강화현(江華縣)’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갑비고차(甲比)’에 대한 해독은 이미 상당 부분 진전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우선은 ‘갑비고차’에 대한 여러 해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갑비’와 ‘고차’의 한자음을 기초로 하여 필자 나름대로 이들에 대한 고구려 어형을 재구하고자 한다. 이에 임홍빈(2007)에서 제안된 ‘추상 재구형’을 설정, 적용함으로써, 알타이 어족 가설이 얼마나 뒷받침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 3. ‘갑비(甲比)’에 대한 이전의 가설

#### 3.1. ‘갑비(甲比)’에 대한 ‘구무’ 해독

이른 시기 ‘혈(穴)’을 ‘굴’이나 ‘구무’로 읽은 것은 양주동(1942, 1965: 274, 365)과 신태현(1958)이다. 양주동(1942, 1965)의 언급을 먼저 보기로 한다.

(3) 양주동(1942, 1965)의 ‘혈(穴)’ 해석

가. ‘혈(穴)’의 고어가 ‘굴’ 뿐임은 ‘혈구(穴口)(甲比古次, 江華)’를 광개

---

였다는 기록이 더 있다.

토왕비, 삼국사 구려기(三國史 句麗紀)<sup>9)</sup>에 ‘관미성(關彌城)’이라  
기사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나. ‘굵은 저 ‘검’(黑), 검(女神) 등어(等語)와 동원어이다.

(3가)는 ‘혈(穴)’에 해당하는 고어가 ‘굵’이란 형태뿐임을 말한 것이다. 이  
는 중세어에서 ‘구무’가 주격형 ‘굵기’ 대격형 ‘굵글’과 같이 변화하는 것과  
달리 고어에서는 ‘굵’이나 ‘구무’와 같은 한 가지 형태만이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백제의 표기 ‘관미성(關彌城)’의 ‘관미(關彌)’도 ‘굵’ 또는 ‘구무’를  
적은 것으로 본다. (3나)에서는 ‘굵’을 ‘검다, 검정’ 등의 ‘검’과도 어원을 같  
이하는 것으로 보고, 여신을 뜻하는 ‘검’과도 어원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주동(1942, 1965)의 해독은 문제의 어형이 고구려어를 적은 것이라  
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이 흠이다.

신태현(1958: 56)의 해독은 양주동(1942, 1965)와 같으면서도 미묘한 점  
에서 차이를 보인다. 신태현(1958)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4) 신태현(1958)의 ‘갑비고차(甲比古次)’ 해석

가. ‘혈(穴)’의 훈(訓)은 ‘굵’으로, ‘갑비(甲比)’는 ‘굵’의 음차(音借)이다.  
이것은 모-비 호전(互轉)의 예로서, ‘갑(甲)’으로 ‘굵’을 음차한 예  
도 있다. 예, 갑홀(甲忽)-혈성(穴城).

나. ‘혈구(穴口)’는 ‘굵고지(罅)’ [穴岬(혈갑)]를 적은 것이다.

(4가)는 ‘혈(穴)’을 ‘굵’으로 읽은 것으로, 양주동(1942)의 ‘굵’ 해독과 다  
름이 없다. 양주동(1942)과 신태현(1958)에서 (4나)의 혈구(穴口)는 ‘구멍의  
입구’와 같이 해석된 것이 아니라, ‘굵고지’ 즉 혈갑(穴岬)으로 해석된 것이  
다. 이는 ‘산 사이에 구멍이 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양주동(1942)과 신태현(1958)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

9) ‘구려기(句麗紀)’는 ‘고구려(高句麗) 본기(本紀)’를 뜻한다.

- (5) 양주동(1942)와 신태현(1958)의 ‘혈구(穴口)’ 해독  
 가. 양주동(1942)와 신태현(1958)은 ‘혈구(穴口)’를 ‘굼고지’와 같이 해독하였다.  
 나. ‘굼고지’는 ‘산 사이에 구멍이 난 것’ 등과 같은 뜻으로 해독되었다.

양주동(1942)이나 신태현(1958)은 ‘갑비(甲比)’보다는 ‘혈(穴)’에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갑비’의 특이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 3.2. ‘갑비(甲比)’에 대한 /\*kap/ 해독

‘갑비(甲比)’가 /\*kapi/의 표기임을 분명히 하고, 그것이 고구려어를 반영한다는 인식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이기문(1968)이다. 이기문(1968)의 관련 논의를 다른 알타이어와의 비교와 함께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 (6) 이기문(1968: 126)에서의 ‘갑비고차(甲比古次)’  
 가. ‘갑(甲)’은 ‘혈(穴)’을 뜻하는 것으로 그 고구려 어형은 /\*kap/이다.  
 나. ‘갑(甲)’으로 표기된 /\*kap/은 북부 방언형이고, ‘갑비(甲比)’로 표기된 /\*kapi/는 남부 방언형이다.  
 다. ‘갑홀(甲忽)’과 ‘갑비고차(甲比古次)’의 비교에서 보아 ‘갑(甲)’은 어간 자체이고, ‘갑비(甲比)’는 단순한 명사 어간이 아니라 다른 단어와의 결합을 위한 곡용형이다.  
 라. /\*kap/은 일본어 /kafi/ ‘협(峽, 산골짜기)’, 고대토이기어 /\*kapĩy/ ‘문(門)’과 비교된다.  
 마. ‘고차(古次)’는 ‘홀차(忽次)’로도 나타나는데, 현재의 강화도와 파주에 해당되는 곳에서는 ‘고차(古次)’ 또는 ‘관(串, 꿩)’으로 나타나지만, 현재의 시흥(始興), 양구(楊口) 등에 해당되는 곳에서는 ‘홀차(忽次)’로 나타난다.<sup>10)</sup>

10) 이러한 추론의 자료가 되는 예는 ‘泉井口縣 一云 於乙買串, 獐項口縣 一云 古斯也 忽次, 獐項縣 一云 古斯也忽次, 楊口郡 一云 要隱忽次’ 등과 같은 것이다. 이기문

(6가)는 아주 중요한 인식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이기문(1968)에 와서야 그것이 고구려어 /\*kapi/를 적은 것으로 파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는 ‘갑(匣)’이나 ‘갑비(甲比)’를 ‘굽’이나 ‘구무’와 관련을 시키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7) 이기문(1968)에서의 문제

이기문 (1968)에서는 ‘갑(匣)’이나 ‘갑비(甲比)’를 /\*kap/으로 읽고, 그 의미를 ‘산협(山峽)’으로 보았으나, ‘굽’이나 ‘구무’와의 관련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宋敏(1999: 184)에서도 ‘갑비고차(甲比古次)’와 ‘갑홀(甲忽)’을 토대로 ‘혈(穴)’에 대하여 /\*kappi/나 /\*kap/과 같은 어형을 재구하고 그것을 고대일본어 /kaɸi< \*kapi/와 비교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상대어(上代語)에서 /\*kaɸi/는 역시 ‘산협(山峽)’을 의미한다.<sup>11)</sup>

### 3.3. ‘갑비(甲比)’에 대한 /\*kupi/ 해독

‘갑비(甲比)’가 ‘구무’와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남덕(1985)이다. 이남덕(1985)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8) 이남덕(1985)에서의 ‘갑비(甲比)’

가. ‘갑비’를 □□삼국사기□□에 기술된 그대로 ‘혈(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일본어의 /kaɸi/는 /kap-/에 명사형성 접미사 /-i/가 결합한 것으로, /kap-/은 제주 방언 ‘굽’과 같이 ‘경계선, 중간, 산협(山峽, 골)’을 뜻한다. 어원적으로는 ‘나누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어근이 /kVp-

---

(1968: 118) 참조.

11)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上代語事典編修委員會 편(1967)이 참고된다.



(~kVm)과 어형이 같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말로 보아야 한다.

다. ‘갑비(甲比)’는 ‘굽이’로 읽는 것이 옳다. 지형이 굴곡된 부분, 특히 강물이 구비친 곳을 가리키는 지명에 ‘구미(九味), 구미(九美), 구비(口非), 구비(九非), 구배(仇俳), 구미(龜尾), 구미(九尾)’와 같은 것이 있다. 강화가 해안선의 굴곡으로 ‘구비’로 불렸을 것이다.

‘갑비(甲比)’를 일본어 /kafi/와 일치시킨 이기문(1968)을 비판하고, ‘갑비’는 □□삼국사기□□에 기술된 대로 ‘혈(穴)’의 의미로 보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갑비(甲比)’를 ‘굽이’로 본 데 그 한계가 있다. ‘굽이’는 강물이 굽이치는 곳이다. ‘강화’의 해안선 굴곡 때문에 ‘굽이’로 불렸을 것으로 본 것이다. 이남덕(1985)에서 ‘갑비(甲比)’는 ‘혈(穴)’의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표방하였으나, (8다)는 ‘혈(穴)’의 의미로 읽은 것이 아니다.

### 3.4. ‘갑비(甲比)’에 대한 /\*kol/ 및 /\*kul/ 해독

이정룡(2002), Beckwith(2004), 최남희(2005) 등에서는 ‘갑비(甲比)’를 /\*kol/이나 /\*kul/을 뜻하는 단어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논의는 ‘갑비(甲比)’를 ‘굴(窟)’이나 ‘동굴’로 해석하는 것인데, ‘강화도’와의 관련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한계이다.

이정룡(2002)은 ‘등가성’의 원리를 중시한다. ‘혈(穴)’이 ‘갑비(甲比)’와 등가이고, ‘압(押)’이 ‘혈(穴)’이나 ‘관(管)’과 등가이며, ‘갑(岬)’이 ‘고시(古尸)’와 등가라는 사실을 중시하여 \*꺠와 같은 재구형을 도출하고, \*꺠와 같은 재구형에서 받침 ‘ㅂ’이 탈락하면 /\*kol/이 되고, 받침 중 ‘ㄹ’이 탈락하면 /\*gap/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등가성’의 원리는 (10가, 나)와 같은 기록에 나타나는 이표기를 동일한 대상의 표기로 보는 것을 말한다.

(9) 가. /\*gap/: [갑비(甲比)…압(押)…갑(岬)]

나. /\*kol/: [혈(穴)…관(管)…악(窟)…고시(古尸)]

‘등가성’의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 ‘갑비’가 ‘산악(山嶽)’으로도 해석되게 된다. 그러나 강화도를 어떻게 산악으로 볼 수 있는가?

‘혈구(穴口)’의 ‘혈(穴)’을 ‘동굴’로 해석한 것이 Beckwith (2004: 71)이다. 정광 역 (2006: 147)의 번역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0) Beckwith(2004)의 ‘혈구(穴口)’ 해석

혈구군(穴口郡) ‘동굴 입구 군’은 \*kaipkutsi ~ ☆kaippkutsi [甲比古次]로 주석되어 있다 (□□삼국사기□□ 권35/362, 권37/379). 또 다른 지명에서 입증된 \*kaip ~ ☆kaippi ‘동굴, 땅굴, 굴(산에 있는)’은 단어 ☆kutsi [古次] ‘입’과 같은 좋은 일본어의 동원어형이 있다.<sup>12)</sup>

(10)은 Beckwith (2004)가 ‘혈구(穴口)’의 ‘혈(穴)’을 ‘굴, 동굴’과 같은 것으로 해독하였음을 보인다. Beckwith (2007)에서도 고대고구려어의 /\*kaip/에 해당하는 중세한국어형을 ‘굴(窟)’로 대응시키고 있다. 분명 ‘굴’도 구멍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강화도를 어떻게 굴이라고 할 수 있는가?

최남희(2005: 157-8)에서도 ‘갑비(甲比)’를 고구려어 /\*kapi/의 음차로 본다. ‘혈성(穴城)’을 ‘갑홀(甲忽)’이라고도 하였으므로, ‘갑비(甲比)’를 /\*kapV/과 같은 형식으로 재구한다. 그 의미는 ‘동굴(洞窟)’이나 ‘강(江)’이다. 강화도가 섬이라는 사실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강화도 주변에 바다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강화도 자체를 강이라고 할 수 있는가?

---

12) 마지막 문장 번역은 다소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 “‘입’과 같은”은 “‘입’이 그런 것과 같이”로 옮기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보인다.

## 4. ‘갑비(甲比)’의 어형과 의미

### 4.1. ‘갑비(甲比)’의 어형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갑비고차(甲比古次)’의 ‘갑비(甲比)’를 이기문(1968)에서는 /\*kapi/를 적은 것으로 보았고 ‘갑(甲)’을 /\*kap/을 적은 것으로 보았다. 이 점은 宋敏(1999: 184)에서도 거의 같다. ‘갑비’를 /\*kappi/로, ‘갑(甲)’을 /\*kap/과 같이 보고 있다. 그러나 ‘갑비(甲比)’의 어형과 ‘갑(甲)’의 어형을 달리 재구하면 왜 동일한 단어에 대하여 두 가지 어형이 있게 되는가에 대하여 해명을 해야 한다. 여기에 제안된 한 가지 해석이 방언형 해석이다. (6나)에 의하면, /\*kap/은 북부 방언형이고, /\*kapi/는 남부 방언형이란 것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더 있다. (6다)의 결합형 해석이다. (6나)와 (6다)에서는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방언 해석에 있어서는 경계 부분의 일치 문제도 있다.

우선은 ‘갑비(甲比)’와 ‘갑(甲)’을 동일 어형을 적은 것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고구려어에서 ‘갑(甲)’의 /ㅂ/이 현대에서처럼 내파(內破)되었던 것이 아니라 외파(外破)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 경우 ‘ㅂ’이 어떤 종류의 모음과 함께 발음되었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다. 현대에서라면 /i/와 함께 발음되었을 것이지만, 중세어라면 /i/와 함께 발음되었을 것이다.<sup>13)</sup>

둘째, (6다)는 /\*kapi/ 형식을 조사를 가진 형식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중세어의 ‘구무’가 ‘굽기, 굽글, 굽괴, 굽괴셔’ 등과 같이 이른바 k-폭용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혈성(穴城)’을 나타내는 ‘갑홀(甲忽)’의 ‘갑(甲)’도 결합 환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비고차(甲比古次)’에서만 ‘갑비(甲比)’와 같은 결합형이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고는 ‘갑비(甲比)’의 고구려어 어형을 /\*kapi/와 같은 것으로 보고자 한

13) ‘훈민정음’ 언해본의 ‘기, 니, 느’ 등과 같은 조사 선택이 참고된다.

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11) ‘갑비(甲比)’의 고구려 어형

고구려 지명 표기에 나타나는 ‘갑비(甲比)’와 ‘갑(甲)’은 다같이 /\*kapi/로 재구한다.

이러한 가정은 ‘혈(穴)’에 관한 고구려어 음절을 개음절로 보는 데 기초한다.14) ‘갑’을 /kap/으로 재구한다고 하더라도 [kabi]와 같이 발음되었을 것이므로, /\*kapi/형의 가정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중세어의 /kumu/형도 염두에 둔 것이다.

4.2. 지명에서 ‘갑비(甲比)’가 의미하는 것

‘등가성의 원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예들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12) 가. 洞山縣 本 高句麗 穴山縣 [동산현은 이전 고구려 혈산현이었다] (□□삼국사기□□ 35권-지4-지리2-45)

나. 猪迺穴縣 一云 烏斯押/烏斯押 [저수혈현은 오사압/조사압이라고도 한다] (□□삼국사기□□ 37권-지6-지리4-03)

다. 松岳郡 本 高句麗 扶蘇岬 [송악군은 이전 고구려의 부소갑이었다] (□□삼국사기□□ 35권-지4-지리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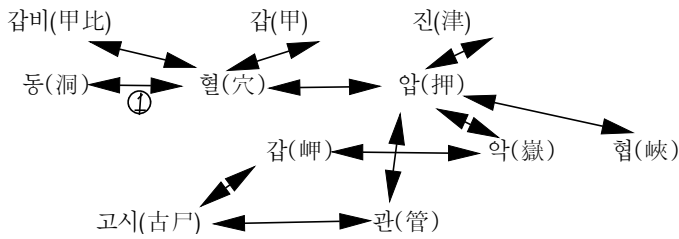
라. 唐嶽縣 本 高句麗 加火押 [당악현은 이전 고구려의 가화압이었다] (□□삼국사기□□ 35권-지4-지리2-30)

14) 고구려어의 경우 모든 단어의 음절을 개음절로 파악한 것이 유열[류렬](1983)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수의적으로 외파되기도 하고 내파되기도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단어에 따라 어떤 단어는 외파되었는데 어떤 단어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본고는 고구려어에서 ‘혈’을 나타내는 ‘갑비(甲比)’는 외파되었을 것으로 가정한다.

- 마. 阿珍押縣 一云 竊嶽 [아진압현은 궁악이라고도 한다] (□□삼국사기□□ 37권-지6-지리4-03)
- 바. 安峽縣 本 高句麗 阿珍押縣 [안협현은 이전 고구려의 아진압현이었다] (□□삼국사기□□ 35권-지4-지리2-19)
- 사. 岬城郡 本 百濟 古尸伊縣 [갑성현은 이전 백제의 고시이현이었다] (□□삼국사기□□ 36권-지5-지리3-34)
- 아. 管城郡 本 古尸山郡 [관성군은 이전의 고시산군이다] (□□삼국사기□□ 34권-지3-지리1-09)
- 자. 大楊管郡 一云 馬斤押 [대양관군은 마근압이라고도 한다] (□□삼국사기□□ 37권-지6-지리4-03)
- 차. 分津縣 本 高句麗 平唯押縣/平淮押縣 [분진현은 이전 고구려의 평유압현/평준압현이었다] (□□삼국사기□□ 35권-지4-지리2-12)
- 카. 心岳城 本 居尸押 (흙토 변) [심악성은 이전 거시갑이었다] (□□삼국사기□□ 37권-지6-지리4-11)
- 타. 大楊郡 本 高句麗 大楊管郡 [대양군은 이전 고구려의 대양관군이었다] (□□삼국사기□□ 35권-지4-지리2-37)

(12가)와 (12나)에서 ‘혈(穴)’은 ‘동(洞)’과 ‘압(押)’에 대응하고, (12다-마)에서 ‘압(押)’이나 ‘갑(岬)’은 ‘악(嶽, 岳)’에 대응된다. 또 (12바)에서 ‘압(押)’은 ‘협(峽)’에 대응하고, (12사)에서 ‘갑(岬)’은 ‘고시(古尸)’에 대응된다. 그리고 (12아)에서 ‘고시(古尸)’는 ‘관(管)’에 대응되고, (12자)에서 ‘관(管)’은 ‘압(押)’에 대응되고, (12차)에서 ‘압(押)’은 ‘진(津)’에 대응하고, (12카)에서 ‘악(岳)’은 다시 ‘갑(押, 흙토 변)’에 대응된다. (12타)는 (12아)의 ‘관성군(管城郡)’ 및 (12자)의 ‘대양관(大楊管)’의 ‘관(管)’이 오자일 가능성이 있음을 보인 것이다. (12)의 대응 관계를 화살표로 연결해 보이면 (17)과 같이 된다.

(13)



이정룡(2002)에는 ‘동(洞)’과 ‘진(津)’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13)에는 이를 더 반영하였다. (13)은 (1가, 나)에서 보이는 대응 관계까지 더 반영한 것이다. 이를 ‘대응 표기도(對應表記圖)’와 같이 부르기로 한다. 화살표가 직접 이어진 두 항을 ‘직접 대응 표기’, 직접 이어지지 못한 표기를 ‘간접 대응 표기’라 부르기로 한다. 화살표로 이어진 두 항은 ‘대응 표기항’이 된다.

(13)의 그림에서 ①로 표시한, ‘동(洞)’과 ‘혈(穴)’은 다른 것이 중간에 매개되지 않았으므로, ‘직접 대응 표기항’이 된다. 그 표기는 ‘직접 대응 표기’가 된다. 이에 대해서 가령 ‘갑비(甲比)’와 ‘압(押)’은 ‘간접 대응 표기항’이 된다. 중간에 ‘혈(穴)’이란 표기항이 매개되고 있다.

(13)과 같은 ‘대응 표기도’에서 관련 표기항 모두가 등가성(等價性)을 가지는 것으로 본 것이 이정룡(2002)이다. 이에 의하면, ‘갑비(甲比)’나 ‘악(嶽)’이나 ‘진(津)’이나 ‘동(洞)’이나 ‘관(管)’이나 ‘혈(穴)’이나 ‘압(押)’ 등이 모두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이 된다. 이를 ‘등가성(等價性) 가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14) 완전 등가성(等價性) 가설

고구려어 지명 ‘혈구군(穴口郡)’의 ‘혈(穴)’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대응되는 ‘갑비(甲比), 갑(甲), 진(津), 동(洞), 혈(穴), 압(押), 갑(岬), 악(嶽), 협(峽), 고시(古尸), 관(管)’ 등이 모두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을 ‘완전 등가성(等價性) 가설’이라 부르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17)에 쓰인 모든 한자 표기항들이 모두 같은 대상을 지시한다고 보기에는 (17)에 쓰인 한자가 너무 많은 것이다. 표기항이 11개나 된다. 동일한 지시 대상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기한다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거의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완전 등가성 가설’을 그냥 그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이정룡(2002: 321)에서는 [갑(甲)…압(押)…갑(岬)]을 같은 형성자(形聲字)에 속하는 자류(字類)로 보아 자음(字音)이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압(押)’은 그 음을 ‘갑’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12카)의 ‘악(岳)’에 대응되는 한자도 ‘압(押)’자로 예시하였으나, ‘흙토 변’의 ‘갑(甲)’자이다. 신태현(1958)에서는 이를 ‘갑(岬)’의 오기(誤記)로 보았다.

셋째, 열린 보기에 (13)은 어떤 의미 있는 경향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불규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선은 (13)에서 두 개의 방사 중심축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혈(穴)’을 중심축으로 하는 방사권이고, 다른 하나는 ‘압(押)’을 중심축으로 하는 방사권이다. 이 두 방사권의 중심축 즉 ‘혈(穴)’과 ‘압(押)’은 하나의 대응 관계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혈(穴)’과 ‘압(押)’이 차이를 가지면서도 모종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15) 두 개의 방사권

(13)의 ‘대응 표기도’는 두 개의 방사권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혈(穴)’을 중심축으로 하는 방사권이고, 다른 하나는 ‘압(押)’을 중심축으로 하는 방사권이다. ‘혈(穴)’과 ‘압(押)’은 하나의 대응 관계선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는 이들이 모종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혈(穴)’을 중심축으로 하는 방사권은 ‘동(洞)’을 포함하여 /\*kapi/ 방사권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중세어로 하면 /kumu/ 방사권이다. ‘동(洞)’도 ‘굴’로 읽혔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굴(窟)’이란 한자가 있는데, 그것

을 두고 ‘洞’으로 ‘굴’을 표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 ‘압(押)’을 중심축으로 하는 방사권은 /nʌrʌ/ (津=나루, 누르) 방사권이라 할 수 있다. ‘압(押)’이 ‘나루’ 즉 ‘누르’로 읽혔음을 말해 주는 자료는 (12차)이다. (13)의 관계망에서 보면, ‘압(押)’은 그 하나의 대응 표기로 ‘진(津)’을 가지고 있다. ‘진(津)’의 새김이 ‘누르’이므로, ‘압(押)’은 ‘누르’를 적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섯째, ‘압(押)’을 /갑/이 아니라 ‘누르다’의 어간 ‘누르’를 적은 것으로 본다면 ‘누르 [津]’와의 관련성이 찾아지게 된다.<sup>15)</sup> ‘누르’는 그 음상이 ‘누르’와 흡사한 것이다. 이러한 해독은 우선 (12차)의 ‘진(津)’과 ‘압(押)’과의 대응 관계를 만족시킨다.

여섯째, 그렇다면, (13)의 표기 대응도에서 ‘혈(穴)’과 ‘압(押)’은 어떤 관계를 이루는 것인가? ‘혈(穴)’과 ‘압(押)’이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12나)와 같은 표기가 가능한 것일 리가 없다. 그런데 ‘압(押)’은 /nʌrʌ/로 읽히고, ‘혈(穴)’은 /\*kapi/로 읽힌다. 의미도 /nʌrʌ/는 ‘나루 [津]’를 뜻하고 /\*kapi/는 ‘구멍 [穴]’을 뜻한다. 의미와 음상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것같이 보인다. 문제는 지명에서의 ‘구멍’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살펴야 한다. 지명에서 ‘구멍’은 배가 들락날락하는 곳일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나루’이다. ‘혈(穴)’과 ‘압(押)’이 음상은 다르지만 지명에서 그 쓰임이 같다. ‘압(押)’의 음상이 ‘혈(穴)’의 표기 대상인 /\*kapi/와 흡사한 것이다. ‘압(押)’으로 /nʌrʌ/를 표기한 것은 그 선대형인 /\*kapi/와의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곱째, (13)에서 다시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압(押)’과 ‘갑(岬)’의 형태나 음이 매우 흡사한 것이면서도 그들 사이에 직접 대응선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sup>16)</sup> 이는 ‘압(押)’과 ‘갑(岬)’의 지시 대상이 일부 유사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갑

15) 이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해독한 것은 신태현(1958)이다.

16) ‘압(押)’을 ‘누르’에서 앞부분만을 따 ‘누노’를 표기한 것으로 본 것이 유열[류렬](1983)이다. ‘누노’는 ‘산’을 가리켰던 것으로 본다.



(岬)’의 자의(字意)에는 ‘바다 쪽으로 좁고 길게 뻗어 나간 육지’ 곧 ‘곶[串]’을 뜻하는 의미가 있다. 이는 ‘갑(岬)’과 ‘압(押)’의 지시 대상이 때로 같은 것일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바다 쪽으로 길게 뻗어나간 육지가 곧 ‘나루’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그런 것의 하나가 ‘나루’이기 때문에, ‘나루’와 ‘곶’의 의미가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게 된다. 따라서 ‘나루’를 뜻하는 지명에 ‘갑(岬)’도 쓰이고 ‘압(押)’도 쓰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덟째, ‘갑(岬)’은 (12사)에서와 같이 ‘고시(古尸)’에 대응되고 있다. ‘고시(古尸)’는 /\*kos ~ \*kosi/을 적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nʌr ~ \*nʌri(nʌrʌ)/를 적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앞의 것은 ‘고시(古尸)’를 소리적기<sup>17)</sup>로 해석한 것이며, 뒤의 것은 ‘고시(古尸)’를 뜻적기로 해석한 것이다. /\*nʌr/는 ‘고(古)’의 새김 ‘늪-’에서 ‘닐’을 택한 것이다. /\*nʌr/에서와 같이 ‘시(尸)’를 /r/로 읽는 것은 차자 표기의 관례이다. 어느 쪽으로 읽든 ‘나루[津]’와 관련된다. (16아, 자)의 ‘관(管)’은 ‘골풀’을 뜻하는 ‘관(管)’의 오자로 보아 ‘골’로 읽을 수 있다. ‘골’이 후행 명사 앞에서 ‘r’이 탈락하고 사이시옷이 개재하면, ‘곶’이 된다. ‘갑(岬)’이 ‘산허리, 산과 산 사이’와 같은 의미를 가질 때, ‘협(峽)’이나 ‘악(嶽)’에 대응되게 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16) ‘갑(岬)’과 ‘압(押)’ 및 기타

- 가. ‘갑(岬)’은 일부 ‘곶’을 뜻함으로써 ‘압(押)’과 유의 관계를 이루었다.
- 나. ‘고시(古尸)’는 소리로 읽으면 /\*kos ~ \*kosi/가 되고, 뜻으로 읽으면 /\*nʌr ~ \*nʌri(nʌrʌ)/가 된다.
- 다. ‘관(管)’은 ‘골풀’을 뜻하는 ‘관(管)’의 오자로 보아 ‘골’로 읽을 수 있다. 후행 명사 앞에서 ‘r’이 탈락하고 사이시옷이 개재하면, ‘곶’이 된다.

이러한 해독은 (13)이 두 개의 방사권으로 나뉜다는 앞서의 주장을 뒷받

17) ‘소리적기’는 흔히 ‘음독 표기’라 하는 것이다.

침한다. 두 방사권이란 ‘혈(穴)’을 중심축으로 하는 방사권과 ‘압(押)’을 중심축으로 하는 방사권이다. ‘혈(穴)’은 /\*kapi/ 방사권의 중심축이고, ‘압(押)’은 /nʌrʌ/ 방사권의 중심축이다. /\*kapi/와 /nʌrʌ/는 음성 형식은 다른 것이지만, 그 지시 대상은 모두 ‘나루’를 가리켰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7) 지명에서 /\*kapi/가 의미했던 것

지명에서 /\*kapi/(甲比)는 /nʌrʌ/(津)의 뜻을 가지는 것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sup>18)</sup>

‘혈(穴)’이 ‘나루’의 뜻을 오래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여자 몸의 일부를 나타내는 어형과 같아졌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강화(江華)’의 ‘화(華)’와 같이 ‘나루’와 근접한 뜻을 가지는 ‘꽃[串]’이 동음이의인 ‘꽃[花]’으로 해석되어, 그것이 ‘화(華)’<sup>19)</sup>로 적히게 된 것이다. ‘강화’의 ‘강’은 ‘강(江)’을 적은 것이 아니다.<sup>20)</sup> ‘강화’는 강에 있는 섬이 아니라,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기 때문이다. ‘강화’의 /kang/은 ‘갑(甲)’의 후대형으로 /\*kam/과 같은 어형을 상정하게 한다. 그것이 자음접변에 의하여 [kang]과 같이 발음되고 그것이 ‘강(江)’과 같은 민간어원에 의한 표기로 정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8) 익명의 심사자의 한 분은 ‘강화’가 지금도 ‘가꾸지’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었다. 이는 ‘甲比古次’란 차음어의 계승으로 ‘가운데 있는 꽃[串]’이란 의미로 해석된다고 한다. 한글학회 (1998)의 ‘한국전자지명사전’ 검색에서는 ‘가꾸지’는 ‘가꾸지나루’의 일부로 찾아진다. 그것은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에 있는 나루의 이름이다. ‘가꾸지’는 아마도 ‘갑고지’형이 마모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갑고지’의 ‘갑’은 역시 ‘갑(甲)’이나 ‘갑비(甲比)’에 소급된다. 전자사전에서는 ‘갑고지’ 형이 여럿 등장한다.

19) ‘화(華)’도 ‘꽃’이란 새김을 가지고 있다.

20) 유열 [류렬](1983: 229)에서는 ‘가비’를 구멍의 뜻을 나타내는 말마디도 되고, ‘바다’나 ‘강’을 나타내는 말마디도 되는 것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말 자체로는 ‘바다’나 ‘강’과의 관련성은 희박한 것이라 해야 한다.

## 5. 고구려어의 /*\*kapi*/와 중세어의 /*kumu*/

그동안 /*\*kapi*/를 중세어의 /*kumu*/와 비교한 일은 거의 없었다.<sup>21)</sup> /*\*kapi*/는 중세어의 /*kumu*/와 비교가 가능한 어형일 뿐만 아니라, 거의 직접적인 음운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kapi*/의 어두 /*\*k-*/는 중세어 /*kumu*/의 어두 /*k-*/와 직접 대응된다.<sup>22)</sup>

고구려어 어중 혹은 어말의 /*\*-p-*/는 중세어 /*-m-*/과 대응될 수 있다. 어중 혹은 어말에서 고구려어의 /*\*-m-*/과 중세어의 /*-p-*/가 대응을 보이는 예가 발견된다. 일본어의 /*namari*/와 비교되는 고구려어의 /*\*namar* (乃勿)과 중세어 /*nap*/이 이러한 대응 관계를 보이는 예의 하나이다.

(18) 가. 鉦城 本 乃勿忽 (연성은 이전에 내물홀이었다) (□□삼국사기□□ 37권

지6-지리4-12)

나. 錫 납 석 (□□훈몽자회□□ 중 15b)

다. 鉛 연 연 (□□훈몽자회□□ 중 15b)

라. 錫 납 석 (□□유합□□ 상 25b)

마. 鉛 俗云那勿 (\*나똥) cf. 이기문(1972: 100)

바. 납 (鉛) (□□한청문감□□ 313d) cf. 유창돈(1964) 참조.

(18가)는 압록강 이북의 도망친 7성 중 하나인 ‘연성’이 그 전에 ‘내물홀(乃勿忽)’이었음을 보여 주는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이 자료는 특히 이기문(1961, 1972)에서 고구려어 자료가 일본어 /*namari*/와의 대응을 보이는

21) 천소영(1990: 180)에서는 /*tan*/과 /*\*kapi*/에 대하여 이들은 고구려어 지명에서만 나타나고, 대신 일본어와 비교되지만, 중세 국어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북방계어로 보고 있다. 이기문(1968)에 제시된 위의 (6)와 같은 입장에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 익명의 심사자의 한 분은 ‘갑비(甲比)’와 ‘구무’의 대응을 음운 대응에서 보아 무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어두 /*k-*/는 동일한 것이고, 어중 자음 /*p* : *m*/은 그 조음점이 같은 것이다. 이를 본고에서는 ‘추상 재구형’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예로 지적되는 것이다.<sup>23)</sup> (18나)는 □□훈몽자회□□의 예로 ‘납’이 ‘주석’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훈몽자회□□에서는 ‘납’이 오히려 ‘연’이란 새김을 가지고 있다. (18라)는 □□유합(類合)□□의 예이다. □□훈몽자회□□와 같이 ‘주석’이 ‘납’으로 되어 있다. ‘연’을 ‘납’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18마)에 보인 바와 같이 전기 중세국어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18바)에서와 같이 □□한 청문감□□ (18세기 후반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한편으로 ‘연(鉛)’을 ‘나물’로도 불렀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석’을 ‘납’이라고도 불렀음을 보여 준다. ‘주석’을 따로 [주석]이라 부르게 됨에 따라 ‘연’이 ‘납’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sup>24)</sup>

‘내물(乃勿)’의 ‘내(乃)’는 Karlgren (1964)에서 상고음이 /\*nəg/, 중고음이 /\*nâi:/와 같이 재구된 것이고, 주법고(周法高) 주편(1974)에서는 상고음이 /\*nəi/, 중고음이 /\*nəi/와 같이 재구된 것이다. 위에서 고구려어의 ‘내물(乃勿)’을 /\*nəimɾ/이 아니라, /\*namɾ/과 같이 재구한 것은 중세어의 /nap/이나 일본어의 /namari/를 고려한 것이다. □□삼국사기□□에 ‘내물왕(乃勿王)’이 ‘나물왕(奈勿王)’으로도 표기된 것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고구려어의 /\*namɾ (乃勿)과 중세어 /\*nap/이 직접 고구려어의 /\*kapi/와 중세어의 /kumu/의 대응을 지지해 주는 것은 아니다. /\*-m/ 대 /\*-p/의 대응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이다. 이를 다음과 제시해 보기로 하자.

- (19) 가. ‘납’의 고구려어와 중세어 = /\*namɾ/ : /nap/ = -m- : -p  
나. ‘혈(穴)’의 고구려어와 중세어 = /\*kapi/ : /kumu/ = -p- : -m-

(19가)에서는 고구려어형과 중세어형의 대응이 /-m : -p/와 같은 것인 데 대하여 (19나)에서는 고구려어형과 중세어형의 대응이 /-p : -m/과 같이 나

23) 박청수(2007)에서는 이 밖에도 몇 개의 고구려 어휘가 더 제시되어 있다.

24) 박청수(2007)에서는 ‘납’의 알타이 공통어형을 /\*nalp/와 같이 재구하고 있다. /\*nalp/에서 /nap/에 이르기 위해서는 ‘l’ 탈락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nalp/형으로 /namari/나 /\*namɾ/을 설명하는 데는 큰 도움을 받기 어렵다.

타난다. 바람직한 것은 (19나)에서도 /-m : -p/와 같은 대응 관계가 성립하는 것일 것이다. 이를 임흥빈(2007)에서 제안한 것과 같은 추상적 재구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

- (20) ‘혈(穴)’의 고구려어와 중세어의 추상 재구형과 성격
- 가. ‘혈(穴)’의 고구려어와 중세어 추상 재구형을 \*KVXW와 같이 상정한다.
  - 나. ‘혈(穴)’의 고구려어와 중세어 추상 재구형 \*KVXW에서 \*K는 대 표음 /k/를 나타낸다.
  - 다. ‘혈(穴)’의 고구려어와 중세어 추상 재구형 \*KVXW에서 \*X는 자 음을 나타낸 것으로, 그 음은 [+consonantal, +anterior]와 같은 자 질을 가지는 것으로 상정한다.
  - 라. ‘혈(穴)’의 고구려어와 중세어 추상 재구형 \*KVXW에서 \*V는 모 음을 나타낸 것으로, 그 음은 [+vocalic, -front]의 자질을 가진 것 으로 상정한다.
  - 마. ‘혈(穴)’의 고구려어와 중세어 추상 재구형 \*KVXW에서 \*W는 모 음을 나타낸 것으로, 그 음은 [+vocalic, -low]의 자질을 가진 것 으로 상정한다.

(20가)에 상정된 추상 재구형 ‘\*KVXW’는 고구려어 /\*kapi/와 중세어 /kumu/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sup>25)</sup> 고구려어 /\*kapi/는 \*K

25) ‘추상 재구형’은 아주 강력한 것이지만, 매우 섬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종래의 비교 연구에 등장하는 ‘음운 대응’은 자칫 소리 대 소리의 대응과 같은 느낌을 준다. 인구어의 자음 추이에 관한 Grimm의 범칙과 같은 /t/ : /th/ : /d/와 같은 대응을 연상 시킨다. 그러나 ‘추상 재구형’은 엄격히 형태 음소적인 것이다. 어휘 형태와 결부되 지 않으면 어떠한 대응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추상 재구형에는 음성 자질이 도입될 수 있다. 자질이 정밀하게 일치할 수 있으면, 친족 관계는 그만큼 가까운 것이며, 자질이 정밀하게 일치할 수 없으면, 친족 관계는 그만큼 먼 것이 된다. ‘추상 재구형’의 설명력은 형태소학의 개념을 기초로 한다. 어휘 형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추상 재구형에 포함시키게 된다. 그것은 개별 언어의 특이한

에서 /k/를 가지며, \*X에서는 [+consonantal, +anterior] 외에 [+explosive]를 더 가지고, \*V에서는 [+vocalic, -front] 외에 [-high]를 더 가진다. \*W에서도 [+vocalic, -front] 외에 [-high]를 더 가진다. 중세형 /kumu/는 \*K에서 /k/, \*X에서 [+consonantal, +anterior] 외에 [+nasal]을 더 가지며, \*V에서도 [+vocalic, -front] 외에 [-low]를 더 가진다. \*W는 [+vocalic, -front]를 그대로 가진다.

(20가)에 상정된 추상 재구형 '\*KVXW'에 의하면, 고구려어 /\*kapi/와 중세어 /kumu/는 충분히 공통의 기저를 가지는 어형으로 해석된다. 이는 고구려어와 중세어를 계통을 달리하는 언어라든지, Beckwith (2004)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구려어는 일본어와만 계통적으로 관련되고, 중세어와는 아무런 계통적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없는 것임을 의미한다. /\*kapi/와 /kumu/에 관하여 (20다)가 의미하는 것은 (20다)에 관한 한, '-m > -p'와 같은 변화가 있었던 것인가 '-p > -m'과 같은 변화가 있었던 것인가는 추상 재구형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역사적인 선후 관계가 밝혀져, /\*kapi/가 변하여 /kumu/가 된 것으로 그 변화의 과정이나 단계를 명시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형태 음소적 변화 과정이나 그에 대한 해석이 정밀성을 띠게 된 것으로, 추상 재구형 \*KVXW는 그것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환영하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21) 고구려어 /\*kapi/와 중세어 /kumu/

가. 고구려어 /\*kapi/와 중세어 /kumu/는 (20가)에 상정된 추상 재구형 '\*KVXW'에 의하여 충분히 포괄될 수 있다.

나. 이는 고구려어와 중세어가 적어도 공통의 언어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다. 추상 재구형에서는, /\*kapi/ > /kumu/와 같이 '-p > -m'의 변화가

---

발달 때문에, 친족 언어를 비교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개별 언어의 특이한 변화를 인정하는 면에서도 종래의 음운 대응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먼저인가, /\*namir/ > /\*nap/와 같이 ‘-m > -p’의 변화가 먼저인가와 같은 변화의 방향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라. 추상 재구형적인 접근에서도 /\*kapi/에서 /kumu/에 이르는 과정의 형태 음소적 변화의 정밀성은 추구될 수 있다.

(21라)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1마)의 ‘관미성(關彌城)’의 ‘관미(關彌)’이다. (1마)의 관련 부분을 다시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22) 冬十月, 攻陷 百濟 關彌城 [겨울 10월 백제의 ‘관미성(關彌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관미(關彌)’의 ‘관’은 ‘빚장, 잡그다, 관계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 의미는 ‘세관’이나 ‘해관(海關)’과 같은 의미의 ‘관(關)’일 것이다. ‘미(彌)’가 바다를 뜻하는 것이라면,<sup>26)</sup> ‘관미’가 의미하는 것은 곧 ‘해관’과 같은 의미이다. ‘관미’는 그 어형에 있어서도 /\*kapi/와 비교될 만하다. ‘관(關)’의 상고한음은 Karlgren (1964)에서 /\*kwan/ 또는 /wan/과 같이 재구되었으며, 주법고(周法高) 주편(1974: 376)에서는 /krwan/이나 /rwan/과 같이 재구되었다. 중고한음은 Karlgren (1964)에서 /\*kwan/이나 /wan/, 주법고(周法高) 주편(1974: 376)에서는 /kuan/ 또는 /uan/과 같이 재구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kapi/에서 /kumu/에 이르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보기로 하자.

(23) ①/\*kapi/(甲比) > ②/\*kuanmi/(關彌) > ③(/kunmi/ > ④(/\*kumi/ > ⑤ /kumu/(穴)

(23)은 ‘갑비(甲比)’에서 중세어의 ‘구무’에 이르는 과정을 5단계로 상정한 것이다. ②의 /kuanmi/(關彌)는 주법고(周法高) 주편(1974)의 상고한음 재구음을 적용한 것이다. 여기서 ③의 (/kunmi/)에 이르기 위해서는 /a/ 탈락

26) 이에 대해서는 임흥빈(2007)이 참조된다.

이 필요하고, 그것이 다음 ④의 (/kumi/)에 이르기 위해서는 /n/ 탈락이 필요하다. ④에서 ⑤에 이르기 위해서는 /u/의 순행 동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가능하고 또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미성(關彌城)’의 ‘관미’는 /\*kapi/와 /kumu/를 잇는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 6. 알타이어의 ‘혈(穴)’과 고구려어의 /\*kapi/

위에서 ‘혈(穴)’을 뜻하는 고구려어로 재구한 /\*kapi/와 가장 잘 비교될 수 있는 알타이어의 어휘는 Starostin *et al.*(2003: 710-711, 737-738, 304)에 \*kǒbú 혹은 \*kúmi 혹은 \*ǎŋa로 등재된 알타이어 재구 어형이다. Starostin *et al.*(2003)에서는 이 세 어형을 각기 독립된 어형으로 등재하였으나, 이 셋은 의미도 유사하고 형태도 서로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 분명하다. \*kǒbú는 고구려어의 /\*kapi/와 흡사하고, \*kúmi는 중세어의 /kumu/와 흡사하고, \*ǎŋa는 일본어의 /ana/와 흡사한 것이다. 의미도 이들 모두 ‘혈(穴)’이나 ‘움푹 들어간 곳’ 또는 ‘공동(空洞)’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충분히 비교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kǒbú 항의 알타이 분화형들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 (24) \*kǒbú의 알타이 분화형

- 가. 원시통그스어 \*kobi 또는 \*kebi(ŋe) 1. 혈(穴), 공동(空洞), 2. 강(腔). 어원키어: qobmíla 1, kēwŋe, kewuŋe 2, 만주어: qobi 1.<sup>27</sup>  
 나. 원시몽골어 \*koγu-su 비어 있는, 공동(空洞). 중세몽골어: qo'osun, 몽골문어: qo γusun, 할하몽골어: xōson, 부리아트어: xōho(n), 칼묵

27) 해당 어형 뒤의 숫자는 알타이재구형 뒤에 제시한 뜻풀이 가운데 해당 번호를 가진 뜻갈래가 적용됨을 뜻하는 것이다. 가령 ‘만주어: qobi 1’에서 ‘1’은 ‘1. 혈(穴), 공동(空洞)’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 어: *xōsn*, 오르도스어: *xōson*; 몽골어: *quson*, 다구르어: *xōson*, 시라-유골어: *xūsən*, 몽구오르어: *xōʒən*.
- 다. 원시튀르크어 **\*kobu-k** 비어 있는, 공동(空洞). 고대튀르크어 *govı* 카라카니테 터키어: *govı* (MK), 터키어: *kovuk, gavık* (방언형), 투르크멘어: *Govaq, Govuq, Govalč, Govuz*, 중세터키어 *govuq* (AH), 카카스어: *xax*.
- 라. 원시일본어 **\*kumpuá** 1. 강(腔) 2. 움푹 들어간, 공동(空洞)의. 고대일본어: *kub(w)ō* 1, 중세일본어: *kubo* 1, *kubom*, 도쿄방언: *kubo* 1, *kūbo-m-* 2, 교토방언: *kúbó-m* 2, 가고시마방언: *kubóm-*.
- 마. 원시한국어 **\*kōr-** (?) 비어지다. 현대한국어: *kōl-*. ||SKE 122,<sup>28)</sup>  
CF. *\*gupu*. 한국어형 *\*kor* 는 *\*kobVr-*를 전제로 한다.<sup>29)</sup>

(24가)의 */\*kobi/*는 (20가)에서 상정한 추상 재구형 *\*KVXW*를 직접 만족시킨다. */\*kapi/*와 */\*kobi/*는 첫 모음 *\*V*가 다르고, 둘째 자음 *\*X*에도 차이가 있으나, 첫 모음 *\*V*는 (20라)에서와 같이 [+vocalic, -front]로 재구된 것이기 때문에, */\*kobi/*의 /o/도 포괄할 수 있다. 둘째 자음 *\*X*도 (20다)에서와 같이 [+consonantal, +labial, +anterior]로 재구된 것이기 때문에, */\*kobi/*의 /b/도 포괄할 수 있는 것이다. */\*kebi(ŋe)/*의 /-e-/는 ‘i’ 모음 역행 동화의 흔적을 보이는 것이며, 어원키어의 ‘qobmīla’는 어중에 기생음 /-m-/이 발달한 것이다.

(24다)의 */\*kobu-k/*도 어말의 /-k/를 제외하면 (20가)에 상정된 추상 재구형 *\*KVXW*를 직접 만족시킨다. (24가)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kapi/*와 */\*kobu-/*는 첫 모음 *\*V*가 다르고, 둘째 자음 *\*X*에도 차이가 있으나, 첫 모음 *\*V*는 (20라)에서와 같이 [+vocalic, -front]로 재구된 것이기 때문에,

28) 이는 Ramstedt(1949: 122)를 뜻한다.

29) 이에 대해서 Starostin *et al.* (2003: 711)은 이것이 Ramstedt(1949)에만 나타난다는 것, 실제로는 */\*korh-/*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끓다’의 ‘끓’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끓’과 */\*kapi/*나 ‘구멍’과의 관계는 밀접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p:/t/은 그 공유 자질이 단지 자음성이라는 것으로만 특징지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kobu/*의 /o/도 포괄할 수 있는 것이며, 둘째 자음 \*X도 (20다)에서와 같이 [+consonantal, +labial, +anterior]로 재구된 것이기 때문에, */\*kobu-/*의 /b/도 포괄할 수 있는 것이다. 어말의 /-k/는 중세한국어의 ‘굽기, 굽글’ 등과 같은 이른바 k-곡용에 나타나는 형태와 흡사하다.

(24라)의 */\*kúmpuá/*도 어중의 /-m-/과 어말의 /-a/를 제외하면 (20가)에서 상정한 추상 재구형 \*KVXW를 직접적으로 만족시킨다. */\*kúmpuá/*는 /-m-/과 /-a/를 제외하면 중세어 /kumu/와 그 형태를 같이한다. 다만 /kumu/의 어중 /-m-/이 */\*kúmpuá/*의 어중 /-m-/과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kúmpuá/*의 어중 /-p-/와 비교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X가 (20다)에서와 같이 [+consonantal, +labial, +anterior]로 재구된 것이기 때문에, /-p-/나 /-m-/이 모두 포괄될 수 있다. */\*kúmpuá/*의 /-m-/은 /-p-/의 유성음화와 관련된된다. 따라서 그것은 일종의 기생음으로 볼 수 있다. 그 소임은 /-p-/를 유성음화하는 것으로 끝난다.

(24마)의 한국어 */\*kōr- (?)*은 비교의 대상이 잘못 선택된 것이다. 고구려어의 */\*kapi/*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형태가 채택된 것이다. 적어도 /kumu/나 /kumən/이 선택되었어야 한다.

고구려어의 */\*kapi/*형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이 (24나)의 원시몽골어 */\*koγu-su/*형이다. */\*koγu-su/*에서 형태소학의 개념을 충족시키는 것은 */\*koγu/*이다. 어말의 */\*-su/*는 접미사이거나 후대적인 발달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koγu/*의 둘째 자음 */\*-γ-/*이다. 이를 (20가)에서 상정한 추상 재구형 \*KVXW의 \*X에 포괄시키기 위해서는 [+consonantal, +anterior]에서 [+anterior]를 제거해야 한다. 이번에는 어중의 */\*-γ-/*가 연구개음이므로, \*X가 /-b-/나 /-m-/과 함께 */\*-γ-/*까지 포괄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X를 [+consonantal, +grave]와 같이 확대해야 한다. */\*koγu/*는 */\*kopu/*에서 어두 자음에 의한 어중 자음의 동화가 일어난 것이다. 뒤에 이것이 한 음절로 축약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할하몽골어 *xōson*, 칼묵어 *xōsn*, 오르도스어 *xōson*, 모골어 *quson*, 다구르어 *xōson*, 시라-유굴어 *xūsən*, 몽구 오르어 *xōʒən* 등의 어형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비교는 Starostin *et al.* (2003: 710-711)에 제시된 */\*kóbú/*형과 고구려어의 */\*kapi/*가 충분히 비교될 수 있는 어형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번에는 Starostin *et al.* (2003: 737-738)에 제시된 *\*kúmi* 향의 알타이 분화형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25) */\*kúmi/*의 알타이 분화형

- 가. 원시튀르크어 *\*kum-* 1. 끝, 2. 공동(空洞), 강(腔), 3. 절벽. 어원키어: *kumdika* 1, *kumɣa* 2, 어원어: *kumtitti* 3, 만주어: *kumdu* 2.
- 나. 원시몽골어 *\*kömüg* ‘끝, 가생이, (산이 위에) 덮인 곳, 피난처’. 몽골문어: *kömüg*, 부리아트어: *xümug*, 칼묵어: *köməg*
- 라. 원시일본어 *\*kúma* ‘안쪽 각(角), 강(腔)’. 고대일본어: *kuma*, 중세일본어: *kúma*, 도쿄방언: *kumá*, 교토방언: *kúma*.
- 마. 원시한국어 *\*kùm-* ‘강(腔), 구멍’. 중세한국어: *\*kùm̥k*, *\*kùm̥i*, 현대한국어 *\*kuməŋ*.

(25)에서 Starostin *et al.* (2003: 737-738)의 표제향 *\*kúmi* 향은 잘못 설정된 것이다. *\*kúmi* 향은 위의 (24)의 *\*kóbú* 향과 합쳐어야 한다. ‘끝’이나 ‘절벽’은 /구멍/을 전제로 할 때, 이질성의 정도가 지나치다. (25)에는 원시튀르크형이 빠져 있는데, 이는 원시튀르크 어형이 모두 */\*kóbú/* 향에 있기 때문이다. (25가)의 *\*kum-*은 우리의 중세어 /kumu/와 비교될 수 있고, (25나)의 원시몽골어 *\*kömüg*도 우리의 중세어 /kumu/와 비교될 수 있다. 어말의 /-g/는 중세한국어형 /kumu-k/의 /-k/와도 흡사하다. (25라)의 원시일본어 */\*kuma/*도 /kumu/와 비교될 수 있다. */\*kuma/* 형태는 */\*kapi/*에서 현대일본어형 /ana/에 이르는 중간 단계의 어형을 보인다.

Starostin *et al.* (2003: 304)에 제시된 *\*aŋa* 향의 알타이 분화형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26) \**ana*의 알타이 분화형

- 가. 원시통그스어 \**ana*- 1. 파다, 2. 틈, 구멍, 3. 열다. 어원키어: *ana* 1, *ana/□□η□□□* 3, *ana*- 2, 어원어: *ana* 1, *ana*- 3, 네기달어: *ana*- 1, 3, *ana* 2, 울차어: *anaGala* 2, 오로크어: *□□ηGa*- 1.
- 나. 원시몽골어 \**an*, *anqa*- 1. 틈, 구멍, 하품(벌린 입), 2. 입을 벌리다, 하품하다, 몽골문어: *anqa* 2, *an* 1, *anxai*- ‘크게 열리다’ 할하몽골어: *an*- 1, *anqai*- 2, 부리아트어: *an(an)* 1, 칼묵어: *an*, *anqa* 1, 오르도스어: *an* 1, 다구르어: *xanqai*- 2, 동산어: *anqai* 2, 바오달어: *anqi*- 2, 시라-유골어: *anxi* 2, 몽구오르어: *anqa*- 2.
- 다. 원시튀르크어 \**an*- 1. 크게 열리다, 2. 놀라다, 당황하다, 3. 크게 열린, 4. 바보, 천지, 5. 무례한, 어리석은, 6. 놀란, 7. 입을 크게 벌리다, 8. 졸린, 희미한, 9. 놀라서 쳐다보다, 10, 하품하다. 카라카니데 터키어: *anā ačuq* 3 (MK), 터키어: *anuk*, *anāc* (방언형) 4, 투르크멘어: *ana*- 2, *anar*- 2, 7, 중세터키어: *anxi*- 6, (AH), 우즈베키스탄: *anaj*- 2, 7, 타타르어: *anxi-mingge bul* 3, *anā* (방언) 5, 키르기즈어: *anqai*-, *anaxar* 1. 9, *anqoō*- 4, *anā*- 2, *anaj*- 10, 카자흐어: *anar*-, *anā* 2, *anqaw* 4, 카라-칼파크어: *anqaw*-, 노가이어: *anqi-ti anqi-tirke* ‘어리석은, 미친’, *ana* 4, *anaj*- 7, 하카스어: *anaj*- ‘놓치다, 잘못하다’, *anaj*- 2, 7, *anax* ‘입을 열고서 있는’, 투바어: *anaxada*- 2, 야쿠트어: *anar*- 8.
- 라. 원시일본어 \**ana* ‘구멍’. 고대일본어: *ana*, 중세일본어: *ana*, 도쿄방언: *ana*, 교토방언: *ana*, 가고시마방언: *ana*.

(26)에는 한국어형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한국어에는 \**ana* 계통의 ‘혈(穴)’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혈(穴)’을 나타내는 가장 전형적인 어형을 발견하지 못한 결과이다. Starostin et al.(2003: 304)는 \**ana*형을 /\**kapi*/나 /*kumu*/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다. 일본어의 /*ana*/와 고구려어 /\**kapi*/ 및 중세어의 /*kumu*/는 추상적 재구형을 기초로 충분히 그 관계를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27) 고구려어 /\*kapi/와 중세어 /kumu/ 및 일본어 /ana/

가. ‘혈(穴)’의 고구려어형과 한국어 중세형 및 일본어형의 공통어적인 추상 재구형을 \*KVXW와 같이 상정한다.

나. \*KVXW에서 \*K는 고구려어와 중세어에서 /k/로 상정하고 일본어에서는 ∅로 상정한다.

다. \*KVXW에서 \*X는 고구려어와 중세어와 일본어에서 [+consonantal, +anterior]로 상정한다.

라. \*KVXW에서 \*V는 고구려어와 중세어와 일본어에서 [+vocalic, -front]로 상정한다.

마. \*KVXW에서 \*W는 고구려어와 중세어에서 [+vocalic, -low]로 상정한다. 일본어의 /a/를 여기에 포함시키면 [+vocalic]만 남게 된다.

(27)에서 고구려어형 /\*kapi/와 중세어형 /kumu/를 제일 먼저 일본어 /ana/와 비교한 것은 어중의 /-p-/나 /-m-/과 가장 비교되기 쉬운 것이 /-n-/이기 때문이다. 변화의 방향은 /-p-/ > /-m-/ > /-n-/과 같이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p-/ > /-m-/의 변화는 고구려어와 중세어에서 이미 확인된 것이며, /-m-/ > /-n-/의 변화는 ‘구멍>구녕’과 같은 방언 변화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가정될 수 있다. (23)에서 중간 과정을 조금 변화시키면 다음과 같이 된다.

(28) ①/\*kapi/ > ②/\*kuanmi/> ③(\*kuani/> ④(\*xuani/) > ⑤/\*xuana/> ⑥ /ana/

/ana/형에서는 ③에서 ④에 이르는 어두 /k/의 약화에 이른 탈락이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 된다. /k/의 탈락이 어떻게 지지될 수 있는가? 한국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가물가물 ~ 아물아물/이나/구물구물 ~ 우물우물/과 같은 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Starostin *et al.*(2003: 304)에서는 다구르어의

‘xangai-’ 형을 아주 이상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26나)의 다구르어의 어두 /x-/는 그 선대형 /k-/를 암시해 주는 형식으로 본고로서는 아주 귀중한 예이다.

‘혈(穴)’을 뜻하는 고구려어 /\*kapi/와 중세어 /kumu/는 그 기원을 같이하는 어형일 뿐만 아니라, Starostin *et al.*(2003: 710-711, 737-738, 304)에서 각기 별개의 항목으로 등재하고 있는 \*kǒbú, \*kúmi 혹은 \*ǎŋa 등도 어원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기원은 /\*kapi/에 있다. 고구려어의 연원이 다른 알타이어보다 멀다고 할 수 있다.

## 7. 결 론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본고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타난 고구려어 지명 가운데 정확하게 해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혈구군(穴口郡)’의 ‘혈(穴)’에 대하여 필자로서 가능한 해독을 제시하고 이후의 변화 및 알타이어족과 관련되는 일련의 가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 ‘혈구군(穴口郡)’의 고구려 때의 이름은 ‘갑비고차(甲比古次)’이며, 백제 때의 이름은 ‘관미성(關彌城)’이고, 신라 경덕왕 때 이름이 바뀌어 해구군(海口郡)이 되었다. ‘혈구도’란 이름도 나타나는데, ‘혈구군(穴口郡)’은 행정 단위에 대한 명칭이고, 그 지리적 명칭은 ‘혈구도(穴口島)’였음을 알 수 있다. ‘해구군(海口郡)’은 고려 때 ‘강화현(江華縣)’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지리적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은 ‘갑비고차(甲比古次)’의 고구려 어형이나 그 의미를 분명히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 ‘갑비고차(甲比古次)’의 ‘갑비(甲比)’를 ‘굽’으로 해석한 것은 양주동(1942/1965), 신태현(1958)이다. 이에 대해서 그것을 고구려 어형으로 해석한 것은 이기문(1968)이다. 이기문(1968)에서 ‘갑비(甲比)’는 고구려어로서 그 어형은 /\*kapi/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kapi/를 일본어 /kafi/와 비

교함으로써 그 의미를 ‘협(峽, 산골짜기)’으로 보고 있다. ‘갑비(甲比)’에 대해서는 ‘갑이’로 본 견해도 있고, ‘골’이나 ‘굴’로 보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원래의 한자인 ‘혈(穴)’의 의미는 무시되거나 거의 돌보지 않았다. ‘협(峽)’의 의미로는 ‘강화도’에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라) ‘갑비(甲比)’는 정확하게 중세어의 ‘구무’에 대응되는 고구려어형 */\*kapi/*를 적은 것으로 볼 때 올바른 변화의 길목에 서게 된다. □□삼국사기□□에서 ‘혈(穴)’에 대응되는 표기를 검토하여 ‘혈구군(穴口郡)’의 ‘혈(穴)’에 해당하는 ‘갑비(甲比)’는 ‘구멍’의 뜻으로 ‘나루’를 가리키던 것임을 밝혔다. ‘갑비고차(甲比古次)’는 ‘나루입구’를 뜻하는 것으로 ‘강화도’의 지리적 특성에 잘 어울린다.

(마) 고구려어의 */\*kapi/*는 중세어의 */kumu/*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어형으로, 이에 관련되는 핵심적인 변화는 */-p > -m/*이나 */-m > -p/*와 같은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예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추상 재구형 */\*KVXW/*에 포괄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다시 추상 재구형 설정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그에 의하여 고구려어와 중세어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언어임도 분명히 하였다. 백제 시기의 ‘강화도’ 지명 ‘관미성(關彌城)’은 */\*kapi/*와 */kumu/*를 잇는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는 어형으로 판단되었다.

(바) Starostin *et al.*(2003)에서 ‘혈(穴)’의 의미 범주에 해당하는 알타이 어휘항목은 *\*kǒbú*, *\*kúmi* 혹은 *\*ǎŋa*이다. 이 세 어형은 각기 독립된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들 세 항목은 그 근원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kǒbú*는 고구려어의 */\*kapi/*와 흡사하고, *\*kúmi*는 중세어의 */kumu/*와 흡사하고, *\*ǎŋa*는 일본어의 */ana/*와 흡사한 것이다. *\*kǒbú* 혹은 *\*kúmi* 혹은 *\*ǎŋa*를 각기 별개의 항목으로 보아서는 온전한 비교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들은 모두 그 기원을 */\*kapi/*에 두고 있는 것으로, 고구려어의 연원은 그만큼 오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방법론적인 기초를 제공한 것은 */\*KVXW/*와 같은 추상 재구형이다.

‘혈구군(穴口郡)’에서 본고가 다룬 것은 ‘혈(穴)’ 부분이다. ‘구(口)’ 부분에 대해서는 고를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문헌

- 김부식(n.d.), *삼국사기*. [참고] 한국사사료연구소.
- 김주원(1981), *삼국사기* 지리지의 지명 연구: 국어 계통 연구를 위하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박청수(2007), 「고구려어의 규칙 2: R2. p-Korean \*mb→Kog. m-」, *일본언어문화* 10, 129-156.
- 宋 敏著, 菅野裕臣[Kanno Hiroomi] 外3人 譯 (1999), *韓國語と日本語のあいだ*, 草風館.
- 신태현(1958), 「삼국사기 지리지의 연구」 신흥대학교 논문집 1, 1-120+641-2.
- 양주동(1942), *조선 고가 연구*, 박문서관.
- 양주동(1965), *증정 고가 연구*, 일조각.
- 유 열[류 렬](1983), *세 나라 시기의 이두(리두)에 대한 연구: 사람, 벼슬, 고장 이름의 표기를 통하여*, 과학, 백과사전출판부.
- 이기문(1968), 「고구려의 언어와 그 특징」, *백산학보* 4, 103-142./이기문 (1991), *재록*, 299-333.
- 이기문(1991),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 이남덕(1985), *한국어 어원 연구 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병선(1988), *한국 고대 국명 지명 연구*, 아세아출판사.
- 이정룡(2002), *한국 고지명 차자표기 연구*, 경인문화사.
- 일 연(n.d.), *삼국유사*, 한국사사료연구소.
- 임홍빈(2007), 「물과 알타이 어족 가설」, *한국알타이학회 2007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알타이언어 비교연구와 한국어계통론*.
- 정 광 역(2006), *고구려어, 일본어를 대륙과 연결시켜주는 언어*, 서울: 고구려 재단. [참고] 원전: Beckwith (2004).
- 천소영(1990), *고대국어의 어휘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최남희(2005), *고구려어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周法高 主編, 張日昇·徐芷儀·林潔明 編(1974), *漢字古今音彙*,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 上代語事典編修委員會 編(1967), *時代別國語大辭典*, 三省堂.
- Beckwith, C. I.(2004), *Koguryo: The Language of Japan's Continental Relatives*, Leiden: Koninklijke Brill NV. Cf. 정광 역 (2006).
- Beckwith, C. I.(2007), "KoguryoKoguryo and the Other Languages of Early Korea in the light of historical linguistic theory and methodology", 2007년 11월 16일 서울대인문대 한국어연구소 초청강연.
- Janhunen, J.(2005), "The Lost Languages of Koguryo," *Journal of Inner and East Asian Studies* 2(2), 65-86. (Seoul)
- Janhunen, J.(2007b), "Altaic Languages: The Current State of Understanding," 2007년 9월 서울대 강연 요지.
- Karlgren, B. (1964), *Grammata Serica Recensa*, Stockholm: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 Ramstedt, G. J. (1949), *Studies in Korean Etymology*, MSFOu 95.
- Robbeets, M. I.(2005), *Is Japanese Related to Korean, Tungusic, Mongolic and Turkic?*, Wiesbaden: Harrassowitz.
- Starostin, S., Anna Dybo, and Oleg Mudrak(2003),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Altaic Languages*, Leiden: Brill.

원고 접수일: 2008년 월 일

게재 결정일: 2008년 월 일

ABSTRACT

---

On *Hyeol* (穴) of *Hyeolgu-gun* (穴口郡) in the  
*Goguryeic* Toponym:  
From the Genealogical Perspective Relating Goguryeic to  
Altaic Languages

Hong-Pin IM

This paper attempts to reconstruct the correct form and meaning of the word ‘kappi (甲比)’ that corresponds to *hyeol* (穴) in the *Goguryeic* toponym *Hyeolgu-gun* (穴口郡) which appears in *Samguksagi* (三國史記). A couple of hypotheses have been put forth on ‘kappi (甲比)’. Yang (1942/1965) and Shin (1958) simply said that the word represented the middle Korean word form /kumu/ or /kum/, not to mention the peculiarity involved in the toponym. Lee (1968) made it clear that the word in question represented the *Goguryeic* language, referring to ‘ravine’, ‘gorge’, etc.

However, it is emphasized that the Chinese letter *hyeol* (穴) should be read as given. It is undeniable that the letter itself refers to ‘hole’, not to ‘ravine’, ‘gorge’ or ‘river’. It is natural to see that the word ‘kappi (甲比)’ corresponding to *hyeol* (穴) refers to ‘hole’ in the toponym. The problem is that it is infelicitous to apply the same word to *Ganghwa* (江華) island, which is located in front of *Gyeonggi*-bay (京畿灣) in Korean peninsular. Examining the correspondence relations holding between the previous toponyms and the later or revised ones that appear in Volume 34-37 of *Samguksagi*, this paper reconstructs the word

form /<sup>\*</sup>kapi/ that refers to ‘hole’, which was applied to a ferry point. The original meaning of /<sup>\*</sup>kapi/ referring to ‘hole’ shows some metaphorical extension in toponym.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second consonant /<sup>\*</sup>p/ of /<sup>\*</sup>kapi/ and the second one /m/ of /kumu/ is well attested in the comparative linguistics between *Goguryeic* and Old Japanese. This paper claims that these kinds of correspondences can be captured by Abstract Reconstructed Form (ARF) like ‘<sup>\*</sup>KVXW’, in which <sup>\*</sup>K stands for the initial consonant, <sup>\*</sup>V the first vowel, <sup>\*</sup>X the second consonant, and <sup>\*</sup>W the second vowel. It can be said that the *Goguryeic* /<sup>\*</sup>kapi/ shows the predecessor form of the middle Korean form /kumu/ ‘hole’.

The Altaic lexical entries representing the semantic category ‘hole’ in Starostin *et al.* (2003) are the forms like <sup>\*</sup>kǒbú, <sup>\*</sup>kúmi, and <sup>\*</sup>ǎŋa. Starostin *et al.* (2003) lists these entries separately in the lexicon. However, this paper claims that the three forms stem from the same root. The form <sup>\*</sup>kǒbú is very similar to *Goguryeic* /<sup>\*</sup>kapi/ ‘hole’, the form <sup>\*</sup>kúmi is very similar to the Middle Korean /kumu/ ‘id.’, and the form <sup>\*</sup>ǎŋa is very similar to Japanese /ana/ ‘id.’ As far as these three forms can be listed under the same heading, the languages like Mongolian, Tungusic, Turkic and Koreanic with Japonic can be claimed to form an unquestionable language family called Altaic, although the Altaic hypothesis is under severe attack from the anti-Altaists like J. Janhunen and A. Vovin etc.

## References

- Lee, Ki-moon (1968), “*Goguryeic* Language and its Characteristics,” *Baeksanhakbo* (白山學報) 4, 103-142.
- Shin, Tae-Hyeon (1958), “A Study on the Topography of *Samguksagi* (三國史記),” *Thesis Collection of Sin Heung University* 1, 1-120.
- Starostin, S., Anna Dybo, and Oleg Mudrak (2003),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Altaic Languages*, Leiden: Brill

Yang, J. D. (1942/1965), *A Study on the Korean Old Songs*, Iljogak(一朝閣) Publishing Company.